

가업과 천직

나 운영

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통된 병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 병일 것이다. 즉 아들만 나면 누구든지 대통령 시킬 꿈을 꾸고 있으니 말이다.

언젠가 TV를 보니 평생 구두닦이로 자수성가한 분의 인터뷰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사회자가 묻기를 「하필이면 왜 그런 직업을 택하셨습니까?」하는 것이었다. 구두닦이를 천직天職으로 알고 그것으로 대성(?)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실례되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.

자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. 더욱이 자기 직업을 천시賤視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직업을 바꿔보려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.

외국 사람들에게는 소위 가업이란 것이 존중되고 있어 조상 때부터 대대로 어떤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기 때문이다.

일례를 들면 일본에 유명한 국수집이 있는데 건물은 낡고 초라하지만 점심때에는 초만원이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데 점잖은 신사가 점심때마다 나타나서 소위 <도어 보이> 노릇을 한다. 바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다. 즉 이 사람은 자기의 가업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으로 알고 —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 자진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이다.

무릇 자기 직업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,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.

한편 전업轉業이란 말이 있다. 자기가 해 오던 직업을 바꿔서 다른 방면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. 즉 자기의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요, 다시 태어나는 셈이 되는데 이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.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애를 걸고 초지일관 — 한번 택했던 그 분야, 그 직업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...

만약 전업을 꼭 해야겠다면 신중을 기하되 일찌감치 해야 하며 두 번 다시 전업할 생각이란 아예 말아야 한다. 결코 길지 않은 자기 생애를 두 번씩이나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.

기술이고, 학문이고, 예술이고, 좀 우직하고 꾸준한 사람,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— 자기의 전공·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에 몰두한 결과일 것이다.

자기의 전공과 전혀 관계없이 모두 대통령 될 꿈만 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...

가업을 존중하는 나라,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맡은 분야에서 떳떳이,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그릇된 의식구조부터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.

<월간 에세이, '91. 8.>